

노을공원 시민가족공원화 추진경과

1. 1999 - 2001년 : 노을공원 골프장 개발 반대 시민운동

- 1999년 6월. 서울시 난지도 제1매립지(10만5천평) 중 7만평에 골프장 건설 발표
- 1999년 6월. 환경운동연합 난지도 골프장 건설반대 성명서 발표
- 2000년 1월. 서울시, 2001년까지 완공목표로 9홀짜리 난지도골프장 건설계획 발표
- 2000년 3월. 5개 환경단체, 난지도골프장 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응 결의
- 2000년 3월. 서울시, 난지도 환경대중골프장 조성기본계획안 확정.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사업자 선정
- 2000년 4월. 5개 환경단체 세계 노골프데이를 맞이하여 난지도 골프장 백지화 집회 (서울시청 별관앞)
- 2000년 6월2일. 난지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단체 공동 토론회 "되살아나는 난지도의 친환경적 복원방안과 골프장 건설의 문제"(새종문화회관)
- 2000년 6월. 국민체육진흥공단, 문화관광부에 '난지도 환경대중골프장 조성 사업계획' 가승인 받음
- 2000년 6월 20일. '난지도 골프장백지화 시민연대(11개 시민환경단체)' 발족 및 100일 서명운동
- 2000년 7월 16일. 난지도 골프장 백지화시민연대, 난지도 생태답사 및 현장시위
- 2000년 8월 3리.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, 난지도 골프장 찬반토론
- 2000년 8월 8일. 서울시, 서울시청 출입기자실에서 밀레니엄공원과 난지도 골프장 설명회를 가지면서 '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'는 예극 발언
- 2000년 9월5일. 서울시의 환경정책 자문기구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형식화하고 난지도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는 서울시 행정에 반발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소속 31명 사퇴 기자회견.
- 2000년 9월24일. 난지도 골프장 현장부지(제1매립지)에서 난지도 골프장 백지화를 위한 서울시민 한마당 개최
- 2001년 4월-8월. 난지도 골프장 건설 강행 규탄 및 고건시장 퇴진을 위한 시위 시작
- 2001년 9월. 자연과 함께 가는 난지도 시민공원 계획 보고서(생명의숲국민운동)
- 2001년 - 2003년. 난지도 발암물질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

* 1999년 6월 25일
이희진
H. J. Kim

2. 2004년 : 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의 논쟁

- 2001년 6-7월, 국민체육진흥공단, 난지도 골프장 이용료 15,000원 화약
- 2003년 3월, 마포구청 체육시설업 사업승인
- 2004년 3월, 서울시립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'난지환경대중골프장'에 관한 조례 제정. 골프장의 운영권과 시설사용료(15,000원)에 대한 내용
- 2004년 6월,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간에 운영권과 그린피를 둘러싼 논쟁
- 2004년 6월 25일, 마포구 체육시설업 등록 신청 반려
- 2004년 7월5일, 국민체육진흥공단 난지도 골프장운영과 관련하여 이명박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거부 취소와 관련조례의 무효확인 소송

3. 2004년 : 골프장 백지화와 시민가족공원화 운동

- 2004년 6월23일, 난지도 환경대중골프장과 시민이용공원의 조속한 개방을 요구하는 시민권리찾기 행사 - 서울의제21시민실천단협의회
- 2004년 7월5일, 서울그린트러스트 이사회, '난지도 노을공원의 시민가족공원화를 위한 기금모금' 의결
- 2004년 7월8일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생명의숲, 환경재단과 함께 '난지 노을공원을 시민의 품으로...' 기자회견을 갖고 난지 노을공원의 백지화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시민가족공원으로 정책전환을 요청, 시민연대 제안.
- 2004년 7월26일, 18개 시민환경단체 대표자를 중심으로 2001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 간에 체결한 "난지 노을공원 조성운영에 관한 협약" 해지와 난지 환경대중골프장을 시민가족공원으로 전환 개강할 것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청원.
- 2004. 8. 4. 2004 시민연대 준비모임(환경연합, 여성민우회, 그린트러스트, 생명의숲)